

## 고등부 우승팀 '고양금융이들'

정책제안 주제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



(좌측부터) 한유진·이은서·오서연·방민성 학생

### Q —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팀 결성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외부대회들을 공지하는 학교 게시판에서 고양시 정책제안대회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외부대회에도 도전해보고 싶어 아는 언니 오빠들, 친구들과 제2회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매경test 응시, 모의주식투자대회, 한국경제퀴즈배틀과 같은 진로탐색 과정 중 대한민국 금융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4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서연** 공지를 처음 봤을 때가 7월 중순이라서 대략 3주 동안 생각을 구체화했습니다. 금융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즉 동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Q — 정책제안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유진** 고양시 고등학교들을 중심으로 조사해본 결과

경제 교과목이 없는 학교도 있고 경제 과목이 있어도 등 급산출을 위한 수요공급 곡선 이동, 비교우위 표판 배우는 학교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아르바이트 시 나의 노동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정보가 필요한지 등과 같은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수업의 취지와 목적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은서** 금융교육이 누구보다 절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종료아동들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의미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매년 약 2,600명이 보호종료아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 자립정착금을 받고, 3년 동안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300~500만 원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오로지 자립 지원금만을 쥐고 사회에서 홀로서기 한다는 사실이 거대하게 다가왔고 이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데까지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인생의

멘토로서 전인적인 유대감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사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Q — 해당 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민성** 이 프로젝트는 고양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산관리에 유용한 배경지식을 체득할 것이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회인이 되기 직전의 시기인 만큼 근로계약과 임대차계약 등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한유진**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입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 각종 펀드, 주식, 보험 상품 등 각각의 특징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실제 상품별 투자예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고용 관련 내용입니다.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근로자가 계약관계상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에 대해 고용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주의점,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등의 교육이 이뤄지게 됩니다.

### Q — 이러한 금융교육이 고양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서연** 경제는 궁극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금융 지식은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면역체계와 같은 것이고요. 금융교육의 시기는 앞당겨져야 하며, 실제로 자녀의 자립 시기가 이른 해외에서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정교육의 일부로서 금융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 실물경제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은서**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미래를 계획

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몇 년 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하게 될 고등학생들에게는 본인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정보력이 높아진 만큼 재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청년층의 올바른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Q — 오랜 준비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고,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은서** 당시 내신준비 기간이라서 대회와 수행평가, 내신 준비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팀원이 특정장소에서 모이기가 힘들어 이메일과 메신저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저현고등학교 김용지 선생님께 많은 조언을 구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지 꼼꼼히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조득우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Q —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승팀으로서 앞으로 고양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방민성** 108만 시민이 모여 사는 대도시인 만큼 청소년정책제안대회처럼 시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조화로운 지역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등부 우승팀 발표 자료